

경제

지역 상장사 1분기 '장사 잘했다'

광주·전남 14곳 영업이익 846억 657% ↑

'워크아웃' 진행 금호산업 흑자전환 성공

광주신세계·기아차·호남석화도 급신장

수출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로 광주신세계와 금호산업, 기아자동차, 호남석유화학 등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들과 지역에 생산거점을 둔 주요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14개사)과 코스닥증권시장(8개사) 상장사의 매출액·영업이익을 평균은 4.16%로, 1000원어치 상품을 팔아 41.6원을 남겼다.

19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4개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846억원과 1조 536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5.35%, 4.76% 증가했다. 순이익도 2136억원에서 1조4000억원 증가한 8264억원을 기록,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시장 8개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43억원에서 올해 21

억원 감소한 22억원(-49.78%), 순이익은 19억원 적자, 매출액도 767억원으로 8.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적자 기업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4개사 중 셀렌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고, 코스닥 8개사 가운데 서산, 셀렌에스엔, 폴리플러스 등 3곳이 적자를 유지하거나 적자로 돌아섰다. 광주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소울과 K7의 판매호조로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248.60% 증가한 3098억원을 기록, 코스닥 영업이익 상위 20개사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도 60.42% 상승한 2462억원을 달성해 17위에 랭크됐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은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 순이익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실적을 올렸다.

광주신세계는 올 1분기 124억200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매출

■ 광주·전남 상장사 2010년 1분기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Table with columns: Company, Sales, Operating Profit, Net Profit, Change (%)

(자료: 한국거래소)

액 영업이익률 23.47%를 기록, 이 부문 상위 20개사 가운데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1000원어치 상품을

팔아 230원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호산업·기아자동차·호남석유화학은 코스피 순이익 상위 20개사에 포함돼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은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1945억원이었으나 올 같은 기간 817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 5위에 올랐다. 기아차는 전년 1분기보다 309.29% 오른 3985억원의 순이익을 내 10위, 호남석유화학도 순이익이 0.92% 상승해 20위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른 내수회복,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내 12월 결산법인 634개사 중 비교가 가능한 573개사(제조업 및 서비스업 560개사, 금융업 13개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6조767억원과 16조625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7.72%와 718.29%가 증가했다. 매출액은 190조7182억원으로 11.26% 늘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가 지난 18일 실시된 3순위 청약에서 최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순천시 조례동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중흥건설 제공)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시장 '기지가'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청약 최고 3대 1

수원 대방 노블랜드·첨단 LH 국민임대도 활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모처럼 기지를 펴고 있다. 19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수안지구 대방 노블랜드와 첨단지구 LH 국민임대,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등 아파트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청약 경쟁률도 최고 3대 1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는 3순위 청약에서 84㎡형 425가구 모집에 1346건이 접수돼 최고 3.1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 71㎡형은 349가구 모집에 400명의 수요자가 몰려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형은 미달됐다.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에서 순위 내 마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용주 중흥S-클래스 분양소장

은 "순천 신대지구에서 첫 분양하는 소형 위주의 대단지에 평면이 4-베이(Bay) 위주로 설계된데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실수요층이 몰린 것 같다"며 "미달된 가구수도 326가구밖에 되지 않아 분양 성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 수안지구에 분양을 시작한 대방 노블랜드도 평균 1.16대 1의 청약경쟁률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수안지구 8-2블록과 8-4블록의 대방 노블랜드 2차는 각각 545가구와 391가구 모집에 703명, 384명이 신청해 1.29대 1과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대방 노블랜드는 이번 주 수안지구 15-1블록에 중형 평형 442가구를 공급한다. 전용 면적 84㎡ 122가구, 84B㎡ 29가구, 84C㎡ 115가구, 84D㎡ 58가

구, 84E㎡ 118가구 등이다. 19일 1순위 청약에 이어 20일 2순위, 24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다음 달까지 광주·전남에 국민임대와 공공분양 등 3239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이달 말 광주시 북구 첨단 2산단 인근에 국민임대 1차와 2차를 분양한다. 첨단1차는 전용면적 36㎡(16평)형 709가구와 46㎡(20평)형 523가구이며, 첨단2차는 36㎡(15평)형 389가구와 51㎡(22평)형 287가구를 구성했다.

6월에는 광주 백운지구에 74㎡(29평)형 98가구, 84㎡(32평)형 581가구, 115㎡(44평)형 159가구 등 838가구를 분양한다. 또 무안 상내에 36㎡(16평)형 221가구, 46㎡(21평) 152가구, 51㎡(23평)형 120가구 등 총 493가구를 공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재개

주채권은행 이달중 정상화 MOU 체결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 부인 이순정 여사의 별세로 잠시 중단됐던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워크아웃(기업개선훈위)이 20일부터 재개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9일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정상화 계획 마련 작업을 재개해 이달 중 회사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채권단은 이달 중 회사측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박삼구 명예회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두 차

레에 걸쳐 총 58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과 대주주 100대1, 소액주주 3대 1 등의 주주별 차등감자를 실시하고 총 6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MOU를 체결하는 대로 자금이 필요한 금호타이어에 우선 신용장 한도를 열어주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중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 등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호타이어에 대한 주주별 차등감자와 출자전환 등은 7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두 발주후 계약 취소·단가 인하 차단

'하도급 계약 추정제' 시행

공정위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영)는 19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이를 일방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금지' 규정을 신설,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

했다. 공정위는 작년에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6%가 계약서 없는 구두발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구두발주의 폐해가 여전하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도급계약추정제란 구두발주 후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 서면 확인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하반기중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남스

적자가구 비율 31%

작년비 1.3%P 늘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띠를 졸라맨던 가계가 경기 회복세와 함께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올해 1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30.9%로 작년 같

은 기간의 29.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적자가구란 소득(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지출(소비지출)이 많은 경우를 뜻한다.

소득 수준별 적자가구 비율을 들여다보면 고소득층인 상위 20%(5배)는 지난해 1분기 11.7%에서 올해 1분기 14.5%로 2.8%포인트 증가했고, 나머지 2·3·4분위 계층도 각각 1.8%포인트, 2.1%포인트,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남스

Financial summary table with items like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and 환율.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